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1년 4월

선교편지 제 142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행기를 두 번이나 갈아타야 오는 이곳 선교지에도 씩씩한 한국인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으로부터 파송 되어 온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사업을 위해 정착한 기업가들이 있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 온 학생들도 있고, 물론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한창 전성기에는 제법 많은 한국인들을 이곳 저곳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부분 이곳을 떠나서 전과 같지 않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매주 기도회를 가졌던 선교사 부인들도 지난 일년 동안 하나, 둘 한국으로 돌아가더니, 이제는 이곳에 제 아내만 홀로 남아 한국과 연결한 zoom으로 안부를 물으며 기도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다녔던 학교도 대면 수업이 불가하여 한국으로 상당수가 떠나고 이제는 학생 수가 거의 반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물론 교사들도 많이 떠나서 학교 유지를 걱정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한국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나마 정착하여 살던 한국인들도 소리 소문 없이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한국인을 상대하며 사업을 했던 한국 식당과 식품점도 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한국 식당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그나마 아직도 영업을 하는 식당은 주 고객이 한국인이 아닌 현지인을 대상으로 메뉴와 가격을 조정하여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 식당인데, 밑반찬으로 김치 대신 바나나 튀김과 땅콩이 나옵니다. 주문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음식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저절로 고개를 들어 주인 얼굴을 쳐다보게 됩니다. 2%가 부족한 아쉬운 맛이 아니라, 이제는 20% 이상이 부족하여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한국 식품점은 인기가 많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이곳 현지인들에게도 라면류는 매우 인기 있는 품목이어서, 좁은 가게가 언제나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라면류를 이곳 식품점에서 사고 있지만, 저희들이 기다리는 품목은 조금 다릅니다. 다름아닌 '콩나물' 입니다. 일반 현지 가게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기다려 집니다. 이곳 한국 식품점에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열흘에 한번 타 도시에서 구입한 콩나물을 판매하는데, 저희도 그 날이 되면 덩달아 삼시 세끼가 콩나물 국, 콩나물 무침, 콩나물 밥이 되어 고향의 맛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전에 평범하게 먹었던 밑반찬들이 이제는 아주 진귀한 식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떠나 돌아가면, 꼭 먹어야 할 음식 종류가 매일 새롭게 쌓여만 갑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출 16:35)**



아직도 한국에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갑작스런 공습 공격과 같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월 15일 공습 (경계) 공보가 울리면, 정해진 장소로 대피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곳 선교지도 민방위 훈련과 비슷한 다양한 훈련들을 평상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과 테러 (Terror)가 아주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낮 12시에 지진 대비 훈련을 하고 있고, 불시에 대테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테러에 관한 뉴스가 자주 나오는 가운데, 이전보다 대테러 훈련도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더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디고스의 아팔라야 지역은 해변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해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전혀 개발이 되지 않은 지저분한 해변이지만, 저와 제 아내가 복잡한 사역 중에 유일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뜨거운 바다 바람이지만 시선이 확 트인 곳이어서,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와 인접하다 보니, 이곳은 '쓰나미 (Tsunami)'가 닥칠 위험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화산 폭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쓰나미 경보가 울리고 지역 주민들은 안전 지역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동네 한 복판에 대피 경로와 대피 장소가 표시되어 있어서, 만일의 사태에 모든 주민들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낮에 발생하는 쓰나미 경보는 큰 혼란이 없이 잘 진행이 되지만, 밤에 발생하는 쓰나미 경보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모든 주요 도로가 자동차가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주민들로 인해 인산인해가 되고, 힘겹게 들고 나오는 가재도구에 신경을 쓰다가 이산 가족이 되고, 전화 통화 급증에 따라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여 혼란이 더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최근 태평양과 인접 국가에서 크고 작은 지진과 화산이 쉬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이제는 훈련을 넘어서 밤에는 모든 해변 인근 주민들은 집을 떠나 안전 지역 밖에서 잠을 자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낮에만 집에서 생활할 수 있고, 저녁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주민들이 집을 떠나야만 합니다. 아팔라야 예일교회는 비교적 해변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아팔라야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중 일부는 집이 아닌 안전 지대에 천막을 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현지 기상청에 의하면 앞으로 두 달 동안 지진과 화산 폭발로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주민들을 미리 대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년 내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금년 초에 강이 넘치는 홍수가 이 지역을 덮쳤고, 최근 계속되는 지진의 여파로 그야말로 어디서도 안정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으며, 이제는 마침내 쓰나미로 집에도 못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대피를 하여 살고 있는 아팔라야 예일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디고스 예일교회 성도들이 구호품을 들고 정기적으로 심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으로 저희들의 피곤한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눅 21:11)



디고스 예일교회의 창립 6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3월 21일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 이맘 때, 즉 창립 5주년 주일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 문을 닫고 모든 예배가 중지된 까닭에 기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일년을 지나 갔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금년은 제한된 규모이지만,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임을 절로 고백하게 합니다.

예전과 같으면, 벌써 한 달 전부터 부서별로 사역을 나누어 풍성한 창립기념 주일 예배를 준비했을 텐데, 이번 기념 예배는 최소한 간소하게 적정 인원만 참석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15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의자 배치에 따라 외부 손님은 전혀 초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앉아서 함께 축하 만찬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음식을 준비 하지 않고,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새롭게 정착된 구제 문화인 예배 참석자 전원에게 쌀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기념품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예배가 끝난 후 기념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선 채로 한 조각 씹만 먹고 집으로 돌아 가기로 했습니다.

아팔라야 예일교회도 디고스 예일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예배를 함께 축하하며 여러가지 행사를 계획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간소화하고 예배 후에 쌀을 나누어 주는 것과 기념 축하 케이크를 나누는 것으로 축하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찬양팀이 특별하게 준비한 찬양을 온 교우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힘껏 부르고, 리더십에 속한 두 팀이 특별 순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고전 1:2)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교회와 성도'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디고스 예일 교회를 지켜 주시고, 이 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여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히 둔한 종을 이곳에 부르셔서 주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비추사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저 앓고 싶을 정도로 낙담이 되고 두려워 어쩔 줄 모를 때가 많았지만,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오로지 주의 은혜로 이곳까지 오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교회를 성령과 말씀,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믿음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 43:21)**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